

## “매실 항암효과 높다”

“프루네이트, 암세포 80~96% 생육 억제”

정중태 보해 중앙연구소장 세계 첫 규명

### ■매실의 성분과 효능

구연산	위장운동촉진·정신분해
파루브산	체내 독성물질 해독
카데킨산	장속유해세균억제·소염
프루네이트	암세포 생육 강력 억제

매실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신비의 과일 매실의 명가를 더욱 높게 됐다.

보해 중앙연구소 정중태 소장(장성공장장)은 최근 ‘매실로부터 암세포를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물질의 분리’라는 논문에서 매실성분 중 특정 활성물질이 암세포의 생육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소장에 의해 ‘프루네이트(Prunate)’라고 명명된 이 물질은 후두암·신장암·자궁암·난소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 투입, 배양한 결과 72시간 후 80~96%의 높은 생육 억제현

상을 보인 반면,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억제율이 23% 이하였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천연 항암제인 셈이다.

정 소장의 논문은 세계적인 농업·식품 전문지인 미국의 ‘저널 오브 어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9월 게재될 예정이다.

정 소장은 예로부터 식중독·배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매실에 또 다른 효능이 없는지 분석하던 중 새로운 성분을 발견해 분리 정제해, 프루네이트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프루네이트는 치료 물질·건강 기능성 물질로 개발할 수도 있으나 천연 매실열매나 농축액 상태에서도 존재하므로 암세포 억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과 당분, 유기산이 주성분인 매실은 유기산 중 구연산이 위장운동을 촉진하고 정산을 분해,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규명했지만 암세포 억제효능은 이번 연구로 처음 밝혀졌다. /이종태기자 jilee@

## 태풍 뒤 큰 비

장마전선 북상... 피해 복구 차질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통과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1일 광주·전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복구 작업에 차질을 주는 것은 물론, 태풍 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태풍에 이어진 호우로 11일 오후 6시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61억3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주요 피해 시설은 도로 45곳(3천153m) 20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했고 하천 73곳 10억 300만원, 철도 1곳 2억 1천900만원, 어항시설 3곳 1억 8천100만원 등이다.

그러나 피해 신고된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0.01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박, 축사, 양식장, 과수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최종 집계될 경우 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태풍에 이어진 호우 때문에 복구작업에도 큰 차질을 빚어 피해가 커졌으며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대형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광양시 진상면 수어담에서 임시 물막이 시설이 붕괴돼 인근 농경지 32ha가 침수됐다. 또 인근 양식장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은어 치어 수십만 마리가 떠내려 갔다. 붕괴 사고로 한계면에 최대 수백여의 물이 넘쳐 흐르면서 400여명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지만 범람한 물의 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대피상황까지는 연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현재 안도 140mm, 해남 100mm, 진도 107.5mm, 목포 64mm, 순천 60.5mm, 광주 75.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안도·진도·해남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으며 다른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특히 안도군 안도읍에는 낮 12시부터 시간당 47mm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해남도 오후 2시부터 시간당 34.5mm, 보길도에는 33.5mm의 폭우가 내렸다. 광주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8.5mm의 비가 내렸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혁신도시 입지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광주지법 판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인 데다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정도(65)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업무는 국가사무인 혁신도시의 건설업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유임 사무를 말하기 때문에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 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한전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입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광주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기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

## 靑 “日 선제공격론은 침략성향 드러낸 도발적 망언”

# 韓·日 ‘北미사일 대응’ 정면충돌

### 아베관방 “논평 않겠다”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을 오만과 망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방식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양국간 외교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는 11일 일본 핵심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대북 선제공격,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데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잇단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한 회의의 논의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추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



김장수 남북 장관급 회담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일본 정부가 우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월례당직자 조회에서 “어제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 선제공격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의 강경파를 자극해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이

라고 말했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북측 권호용 내각책임참사가 접견실로 향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저녁 청와대에 김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을 초청,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11일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대해서는 “그런 논평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누가 후쿠시마 방위청 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아소 다로 외상도 NHK에 출연, “(핵)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한나라당 새 대표 강제섭의원

한나라당 대표로 강제섭 의원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은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8차 전당대회를 열고 전체 투표수의 24.98%(5,254표)를 얻은 강제섭 의원을 임기 2년의 새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강 의원과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이재오 의원은 22.78%(4천791표)를 차지, 2위를 차지했으며 강창희 후보는 12.48%(2천626표)로 3위, 전여옥 후보는 9.48%(1천994표)로 4위, 정형근 후보는 9.47%(1천993표)로 5위를 차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권영세 의원(8.43%, 1천773표), 이규

택 의원(7.87%, 1천656표), 이방호 의원(4.51%, 949표)은 낙선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이끌게 되는 강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2008년 대선후보권을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당의 의원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조만간 지방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해 지도부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후원학원 장학 5.68년 최시만 장학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상담전화: 062)770-0114 ~ 770-0200-9

새로운 담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ch.ac.kr  
 ▶ 상담전화: 058-9251 ~ 1,080-360-3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상담전화: 02)770-7300  
 TEL: 0777-7300 FAX: 0777-7302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탄 받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탄은 어떤 총탄보다도 폭탄보다도 무섭다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한 7대 실천과제  
 ① 지탄받지 않는 경영 ② 업무상성명명 ③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④ 친환경운동 ⑤ 문화체육사업 ⑥ 아름다운 노사관계 ⑦ 협력·공정경쟁